■ 광주 한 정신병원에선 이런 일들이…

팔·다리 짐승처럼 묶고 학대 서류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

인권위, 병원장·의사 등 4명 고발

병원 "감금·결박 사실과 다르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인 박모(15)군은 장판과 벽지가 다 뜯겨져 나가고 대소변 냄새가 나는 정신병원 병실에서 짐승처럼 묶여 있어야 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이 목욕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저귀만 채운 채 철제 침대에 묶어 놓고, 4개월 동안 방치·학대한 것이다. 이 병실에서는 박군 외에도 조모(19)씨 등 3명이 같은 방법으로 묶여 지냈다.

알코올 중독자 송모(여·57)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해 5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야하는 악몽을 겪었다. 정신병원 측이 법적 보호 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 딸(당시 17세)에게 '입원동의서'를 받아 병실에 가둬버린 것이다. 병원은 송씨의 도장을 멋대로 파서 '자의 입원 신청서'를 위조했다.

지난 2006년 1월 11일 장성 H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모(52)씨 등 환자 30여 명은 갑자기 원하지 않는 광주의 한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H병원이 폐업하면서, 원장들끼리 전화로 상의한 뒤 병원 직원 5명, 관광버스·봉고차 등을 동원해 강제로 옮긴 것이다. 가족·본인 동의 등 정신보건법(26조)에 규정한 입원절차가 없는 '불법 감금'이었다.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은 광주 C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은 채 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시킨 C병원 원장 주모(51)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학대,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모(55)씨, 원무팀장 전모(40)씨, 전(前) 원무팀장 윤모(51)씨 3명도 감금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인권위원회는 또 병원 측이 환자 주민등록등본 15건을 관할 동 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추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매 6개월마다 환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원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광주시청과 구청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C병원 측은 "결박은 환자들의 자해를 막기 위해 한 것이며, 송씨 딸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라면서 "도장과 주민등록등본도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았고, 서류 위조나 감금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병원에선 입원 중이던 환자 박모(69)씨가 지난 6월 실종됐다. 지난해 9월엔 환자 김모(38)씨가 같은 병실에 있던 정모(52)씨를 목졸라 살해했고, 지난 2005년에도 치료를 받던 이모(여·57)씨가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한편 광주·전남 정신의료기관 40곳에는 5천700여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며, 이중 82.5%(4천714명)가 가족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 됐다. 또 4개 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환자 844명 중 76.2%인 645명이 5년 이상 장기 입원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관광박람회 동신대학교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단장 허기택·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제3회 문화관광박람회'에서 승무원학과 학생들이 메이크업 시범을 보이고 있다. '창조와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일까지 계속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설치는 기름도둑…잠 설치는 농민들

비닐하우스 면세유 절도 잇따라

농사일에 새벽까지 감시 이중고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농업용 면세유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시설 농민들은 기름 도둑이 설치자 새벽잠을 설치며 순찰을 도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류성중(47)씨는 최근 비닐하우스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천200㎡(670평)의 면세유 유류 탱크가 텅 비어있었기 때문. 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류 탱크 두 개(7천ℓ 용량)에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경유 3천500ℓ(280만원 상당)가 남아있었지만 새벽녘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날 인근 시설농가 2~3곳도 면세유 수백ℓ를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는 하우스 온도를 올리기 위해 기름을 많이 써야한다"며 "면세유 배정량도 모자라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데 난방유를 도난당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나주시 남평면 대교리 비닐하우스에서 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농민도 최근 면세유 1천500ℓ를 도난당했다. 이 농민은 "절도범들이 유류 탱크 아래에 있는 호수를 잘라 기름을 빼갔다"며 면세유 2천ℓ를 받아간 지 5일 만에 또다시 면세유를 받으러 농협을 찾았다.

남평농협 면세유 담당 서석철(41)씨는 "'말 통'에 담아둔 기름까지 도난당한 것을 포함하면 최근에만 2~3건의 절도사건이 있었다"며 "도둑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경운기에 유류 탱크를 싣고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376〉 김종두

'아동 학대' 광주 모 복지시설 원장·사무국장도 고발 당해

아동학대 혐의로 생활지도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 S복지시설의 원장·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한선희)이 "S시설의 남모(여·56) 원장·안모(여·44) 사무국장이 아이들을 때린 정황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증언을 받아냈다"며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조만간 소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26일에는 김모(여·27)씨 등 이곳 생활지도원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26일 원내 교회에서 초등 5학년~고등 2학년 원생 15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그러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아이들의 행동수정(생활지도)을 위해 발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생활지도원 10명은 지난 9월 초 체벌 등의 이유로 전원 해고됐었다. /오광록기자 kroh@

정동영 후보 현수막 불 타 경찰, 방화범 검거 나서

5일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 입구 앞 나무에 걸려 있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대형 현수막(가로 7m·세로 80㎝)이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수막에 붙은 불은 은행나무와 옆에 있던 리어카도 전소시켜 1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현수막인 점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방화범을 찾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장 선거 시비 폭행…60대 중태

화순경찰, 50대 체포

화순 경찰은 5일 같은 마을 주민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양모(55)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구판장에서 주민 차모(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달 15일 있었던 이장 선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다. 차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차씨가 "지난달 마을 이장 선거에 내가 출마했을 때 왜 나보고 '부적격자'라고 말하고 다녔느냐"고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대학 채용 비리 수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순천 모 대학교에서 교직원 채용 등 학교와 재단 운영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수와 교무처 직원 등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만취 운전자 단속 경찰 3명 폭행

쌍나팔

○…광주 서부경찰은 5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의경 등 3명을 폭행한 모 택배회사 운전사 박모(30·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빌딩 앞에서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정모(53) 경위와 서모(21) 상경 등 의경 2명을 폭행했다는 것.

○…박씨는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6%(면허 취소)로 나왔는데, 지난 2000년에도 도주차량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었다고.

○…만취상태로 서부경찰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박씨는 이날 아침에도 "술김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 /안현주기자 ahj@